

2023

AJ네트웍스 - 트리플래닛 교실숲 조성 사업 임팩트 결과보고서



Contents

- 1** 트리플래닛
트리플래닛
사업 영역
- 2** 생물다양성과 기업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기업의 참여 방법
- 3** 생물다양성과 AJ네트웍스
한반도와 생물다양성
교육과 생물다양성
- 4** 사업 소개
교실숲 환경교육
- 5** 사업 성과
생물다양성 증진
인식 개선
ESG 공시 생물다양성 임팩트 산출

1 트리플래닛

1. 트리플래닛

Plant for All.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트리플래닛은 나무를 심는 사회혁신 기업으로
숲을 조성해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트리플래닛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2010년 시작되었습니다. 창업 이래 나무 심기 게임, 클라우드 펀딩, 반려 나무, 숲 조성, MYF 커피, 교실숲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도전해 왔으며, 그 결과 전 세계 15개국에 352개의 숲, 11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트리플래닛은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대기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완화, 생태계 복원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목표는 2050년까지 1억 그루의 나무를 이 행성에 심는 것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만들어 나가는, 나무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2. 사업 영역

교실숲 조성사업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와 생태계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경험을 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생태교실 조성사업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멸종위기식물종을 포함한 약 1200주의 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합니다.
흐르는 계절 속에서 아이들이 순환하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산업혁명 이후 지구상의 생물 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자생식물,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연구와 대중화를 도전합니다.

반려나무 입양사업

반려나무 입양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식물과 함께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숲 조성 기금으로 활용되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숲 조성사업

강원 산불피해 복구, 백두대간 멸종위기종 복원, 미세먼지 방지, 탄소중립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숲을 조성하여 사회 전반의 환경 재난을 복구하고 예방합니다.

2 생물다양성과 기업

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환경 문제,
기후변화 다음은 생물다양성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동물학회가 공동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적으로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약 69% 감소했습니다. 국제식물원보존협회(BGCI)의 세계식물 보고서는 2021년 기준 전체 식물 종 중 37%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 약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생물이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 위기는 기존의 기후 위기에도 연결됩니다. 숲, 습지, 산호초 등의 핵심 생태계의 파괴는 강력한 탄소흡수원의 손실이 되며, 이는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자연에 더 큰 피해를 남기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이러한 생물다양성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 리우의 지구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150개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서명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는 생물다양성을 해양생태계(14번)와 육상생태계(15번)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목표를 통해 강조했으며, 기후행동(13번)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요구에 맞추어 국내 정부 또한 5년마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여 한반도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UN에서 선정한 지속가능경영목표(UN-SDGs) 17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인류공동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14번과 15번, 기후변화 관련 위험 대응을 다루는 13번과 연관이 있습니다.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는 제15차 회의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2030년까지 이행할 생물다양성 실천 목표 21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19~2023년]

한국 정부는 8개 관계부처의 협동으로 5년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 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세부 전략으로는 생물다양성 주류화, 위험요인 관리, 보전 및 증진, 이익 공유, 증진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와 투자자는
기업 또한 이러한 노력에 함께할 것을 원합니다.**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ESG 트렌드 보고서에서, 생물다양성은 2021년부터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주요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의 재무적 공시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는 GRI 또한, 304번 주제로 생물다양성과 기업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생태 영향에 대한 고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자연 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 과학 기반 목표 네트워크(SBTN) 등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면서,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보다도 빠르게 ESG 시장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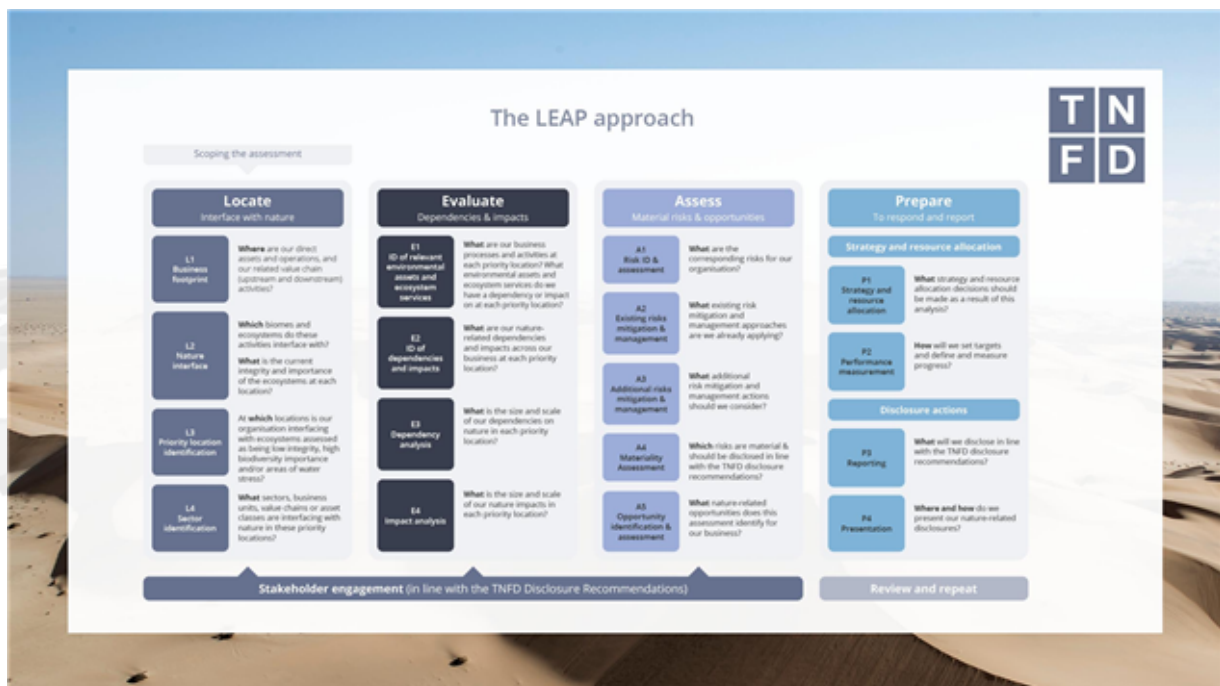
더 나아가, 2023년 EU는 지속가능경영표준(ESRS)을 발표하며 기업의 책임경영을 의무화하며, 환경 분야 4번째 주제(E4)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포함했습니다. 국내 또한 2025년부터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계 GDP의 50%는 생물을 포함한 자연 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경제 활동은 결국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코앞에 도래한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마주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은, 앞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성과 지표가 될 것입니다.**

2. 기업의 참여 방법

기업이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면한 생태계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조하는 곳이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입니다. 기존 시장 경제와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TNFD는, 자연 자본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공시 기준을 제공합니다. LEAP 접근법은 TNFD에서 설계한 가이드라인으로, 생물다양성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접근법은 크게 확인(Locate), 분석(Evaluate), 진단(Assess), 대비(Prepare)의 4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으로는 17개의 하위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확인(Locate) 단계에서 기업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그 밸류체인(Value chain)을 점검하고, 연관된 생태계를 확인합니다. 기업 활동이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해당 지역 생태계에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며 기업에 중요한 생태계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두 번째, 분석(Evaluate) 단계에서 기업은 중요하게 드러난 생태계, 혹은 자연 자원에 대하여 기업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 종류와 규모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 진단(Assess) 단계에서 확인된 상태와 분석된 영향력을 기반으로 미래에 다가올 위험과 기회를 진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위험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고민합니다. 이들이 어떤 기회로 이어지며,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는지도 측정합니다.

마지막, 대비(Prepare) 단계에서는 진단된 관리책을 기반으로 앞으로 기업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어떤 전략과 어떤 자원 배분을 활용할지,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이를 측정할지,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발표할지 계획합니다.

기업은 이 4가지 단계를 통해, 기업 경영에서 자연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상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실천하고 공개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LEAP 접근법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 반경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떤 지역과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TNFD에 대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의 지지 선언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사, 보험사 및 철강 기업을 중심으로 TNFD 가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유관기업들의 참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TNFD 가입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TNFD 지지 선언을 한 기업 및 단체는 1,234개이며, BlackRock을 포함한 금융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지 선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NFD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18개 주요 산업 (자동차, 철강, 운송 등) 역시 산업군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TNFD를 중심으로 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ESG 트렌드는 이제 메가 트렌드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TNFD에 따른 ESG 경영 성과 공시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트리플래닛은 **한반도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AJ네트웍스에 맞춤형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3 생물다양성과 AJ네트웍스

1. 한반도와 생물다양성

**AJ네트웍스가 활동하는 한반도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으로 수많은 생물의 서식지가 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긴 땅은 냉대 기후부터 아열대 기후까지 포함하며, 뚜렷한 사계절은 강수량과 온도 차이를 만듭니다. 지형적으로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덕에 해안 지형이 발달했으며, 동부 중심의 넓은 산지 지형과 그곳에서 시작된 하천 지형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섬, 습지와 갯벌, 석회암 지형과 화산 지형 등의 특수 지형이 더해져, 한반도는 비교적 작은 면적임에도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된 독특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생태계는 곧 다양한 서식지를 의미하며, 이는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이어집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한반도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은 총 5만 8050종에 달합니다. 또한 산과 바다로 고립된 지역이 많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은,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종을 만들어 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고유종의 수는 2289종으로, 이들은 한반도에서 서식지를 잃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한반도의 생태적 가치는 무척 높지만, 산업화와 함께 질 높은 서식지를 잃으며 생물다양성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기업은 이례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그 부작용으로 오랫동안 성장해 왔던 한반도 고유의 자연경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습지, 농경지, 산림지 등, 높은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던 국내의 천연 서식지들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 면적이 감소했으며, 세계화를 통해 유입된 외래종은 토착종들을 밀어내며 기존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탄소 배출로 시작된 기후변화 또한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변화시켜 생태계 전반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보호종의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회복, 그 시작은 식물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협에서, 가장 빠르게 큰 피해를 본 생물 중 하나는 식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식물은 갑작스러운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의 수많은 식물이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기도 전에 인간 활동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있는 자리에서 고사하는 아고산대 식물들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에서도 육상식물은 1급 13종, 2급 79종으로 전체에서 약 32%의 비중을 차지해, 국내 식물이 마주한 생물다양성 위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식물은 생태계의 위협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식물은 대부분이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는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자가 공급하는 생산자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가집니다. 또한 식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수분을 저장하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며, 식물 자체가 또 다른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면서 생물다양성 증진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특정 지역의 식물 상태는 결국 해당 생태계 전반의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리플래닛은 기후변화를 넘어 생물다양성에서도 식물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AJ네트웍스가 식물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생태계 복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육과 생물다양성

**우리의 프로젝트가 더 장기적인 연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생물다양성 인식을 심어나갑니다.**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사업 이후에도 이어질 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대다수에게 생물다양성은 다소 생소한 주제이며, 이를 자세히 접할 기회 또한 부족합니다. 국가 기관과 환경 단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생물다양성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기업 또한 그 흐름에 함께한다면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연쇄적인 생물다양성 임팩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필수 공략 대상은 현 생태계 파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미래 한반도를 책임지며 살아갈 어린 학생들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선진국은 이미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생태교육이 공교육의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1번으로 학교 내 생물다양성 교육을 내세우는 등, 학생들의 인식 개선은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의 중요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리플래닛은 **아이들이 정보 위주의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 직접 생태계를 체험하고 환경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몸소 체험하는 주체라면, 성장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전례 없이 악화되는 현시대의 환경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입니다. 현시대의 사회 결정들은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기며, 이 때문에 특히 정부, 기관, 기업의 임직원들은 바람직한 환경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화율이 90%를 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바쁜 현대인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의 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을 접하고 보전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플래닛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AJ네트웍스의 임직원들 또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연 접근성 개선을 돕습니다.**

4 사업 소개

1. 교실숲 환경교육



사업명	AJ네트웍스 교실숲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3. 3. 2 ~ 2023. 12. 31	
사업대상	서울문정초등학교	
사업규모	활용된 식물	아레카야자 15본, 관음죽 15본, 파초일엽 360본
	환경교육 참여 인원	552명
	총 환경교육 이수 시간	264,960 분
사업내용	초등학생들에게 국내 멸종위기종 식물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관련목표	<p>SDG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에게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p> <p>SDG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p>	

5 사업 성과

1. 생물다양성 증진

(1) 자생종의 보호

**교실숲 조성사업을 통해 멸종위기종이자
한반도 자생식물 파초일엽을 390본 증식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다른 종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남깁니다. 특히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식물의 경우 그 보전 상태에 따라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생식물 보전은 생물다양성 증진의 기초작업이며, 자생식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트리플래닛은 교실숲 사업을 통해 멸종위기 자생식물인 파초일엽을 보전했습니다.

파초일엽은 일제강점기부터 관심이 필요한 수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 1962년 파초일엽이 자생하는 섬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파초일엽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1996년 환경부가 파초일엽을 공식 멸종한 식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섬섬 주변의 한 주민이 개인적으로 자생 파초일엽을 키우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파초일엽 개체를 국립수목원이 받아 대규모 증식과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파초일엽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서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통해 관리, 보전되고 있으며 트리플래닛은 기청산식물원과 협력하여 파초일엽을 전문적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의 증식은 트리플래닛 사내 및 산하 농장과 기청산식물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멸종위기 식물의 증식은 트리플래닛의 양묘장과 본사에 있는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리플래닛이 직접 관리한 멸종위기종 증식 공간은 국립세종수목원과 기청산식물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식물 종을 위한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트리플래닛은 파초일엽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증식된 식물들은 트리플래닛에서 재활용 소재로 자체 개발한 스미뮌 화분과 함께 환경교육에 활용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2. 인식 개선

(1) 교실에서 성장하는 환경 인식

**교실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시작입니다.
교실숲 사업을 통해 552명의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했습니다.**

자연 체험은 체험자의 자연에 대한 탐구심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자연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환경교육은 이론적인 환경교육보다 학생들의 친환경적인 태도 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조합니다. 특히 평소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교육은,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친근감과 이해도를 기반으로 더욱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실숲 조성사업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직접 자생식물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교육을 제공합니다.**

AJ네트웍스 교실숲 조성사업은 서울문정초등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실숲은 각 학급별로 아레카야자 1본, 관음죽 1본, 파초일엽 24본으로 구성했으며, 실내식물의 적정 비율인 교실 부피 대비 2%의 양이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총 23학급에 조성된 교실숲은 552명의 학생들을 위한 자생식물 체험 공간이 되었습니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현직 초등 및 중등 교사와의 공동연구로 제작된 7회차 분량의 환경교육을 수료합니다. 약 480분 동안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후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직접 분갈이를 진행하며 학생들은 식물 키우기 과정을 체험합니다. 자신들이 맡은 식물에 이름을 짓고, 화분을 꾸미고, 흙과 잎을 관찰하는 등, 학생들은 식물과 긴밀하게 교감하며 그 소감을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에 대한 탐구심, 인간 외의 생물에 대한 감수성,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환경 행동을 위한 실천 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총 552명의 학생이 264,960분의 시간 동안 식물의 생태계를 학습했습니다.**

(2) 기업에서 성장하는 환경 인식

기업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핵심입니다.

**AJ네트웍스 임직원 19명이 교실숲 조성사업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업의 친환경 의식을 높였습니다.**

온실가스의 감소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구 공동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기업이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성원 또한 자연 보호의 필요성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문정초등학교 교실숲 조성 과정에서, 기업 내 개인은 봉사활동의 형태로 직접 탄소중립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지구를 위한 환경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18일, AJ네트웍스 임직원들은 서울문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학생들을 위한 교실숲 조성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내 개인 단위의 참여 경험은 향후 AJ네트웍스의 ESG 활동에 있어 장기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기사]

-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2012.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홍릉산림과학시험림에서 숲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능 기초 자료 분석, 2017.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다양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혼제된 생활공간에서 실내식물의 공기정화 효율 정보제공, 2013.
- 김광진, "식물이 실내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농업연구 6 no.1 (2004): 138-158.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촌진흥청 연구성과 (사무실에 식물 2%로 '그린 힐링오피스' 연출), 2014.
- 농촌진흥청, 에코힐링을 위한 공기정화식물, 2014.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학교 미세먼지 관리목표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8.
- 임업연구원, 도시숲이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 2003.
- 트리플래닛, 산림과학원 TREE PLANET 숲 임팩트보고서, 2018.
- P.J. Peper, E.G. McPherson, J.R. Simpson, S.L. Gardner, K.E. Vargas, Q. Xiao, NEW YORK CITY, MUNICIPAL FOREST RESOURCE ANALYSI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Pacific Southwest Research Station, Center for Urban Forest Research, 2007.
- 한국소비자원, 가전제품 효율등급에 따른 에너지비용 비교 조사, 2020.
-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 Taxing energy use: a graphical analysis (2013)
- Taxing energy use 2015 :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15)
- Effective Carbon Rates on Energy: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16 브로셔)
- OECD Effective Carbon Rates 2021 보고서 주요내용, 주 오이시디대표부, 20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숲가꾸기, 나무의 말뚝효과 그물효과 촉진시켜 산사태 방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302200>
- BBC NEWS KOREA, <https://www.bbc.com/korean/news-43524873>
- UN SDGS, https://worldtop20.org/global-movement/?gclid=Cj0KCQjwwO21BhCzARIsALw3ASqYkm0zdJfYgadP31Dd9zW-oqBLd4ZYfIQWDXym0EjOOofvTVUrJKtcaAjBaEALw_wcB
- David Nowak, USDA Forest Service, Syracuse, NY

plant for all.